

임진왜란 시기 고령 지역의 의병운동과 의미

金康植*

차례

1. 머리말
2. 고령의 위치와 창 의 배경
3. 초기 의병운동과 의미
4. 후기 의병운동과 의미
5. 맺음말

국문초록

일반적으로 임진왜란으로 불리고 있는 임진왜란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된다. 그것은 임진왜란 개전기, 강화회담 시기, 정유재란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기구분에 따라서 임진왜란 시기에 경상우도의 전략적 요충이었던 고령 지역에서 의병운동을 통해서 전란을 극복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첫째, 임진왜란 시기에 고령 지역은 일본군의 침입 경로에 위치하여 초기부터 침입을 당한 지역이었다. 이에 고령 지역의 민들은 임진왜란 개전기에는 낙동강을 건너 전라도로 진격하려는 일본군을 차단하였으며, 전쟁 소강기에는 후퇴하는 일본군과 추격하는 명나라 및 조선군의 주둔지와 전쟁터였으며, 정유재란기에도 주요 전쟁터였다.

둘째, 고령 지역에서는 임진왜란을 방어하기 위해서 재지사족과 민들에 의해서 일찍부터 의병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임진왜란 전 수령의 부정과 조세제도의 모순으로 관주도의 항쟁은 불가능하였다. 이에 고령 지역의 의병운동은 재지사족들의 기반에 터전하여 전개되었다. 임진왜란 전후에 고령향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의병운동을

* 동명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주도하였으며, 그들은 향촌사회의 경제적 기반을 의병운동의 군사와 군량으로 내어 놓았다.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敬과 義를 강조한 남명 조식의 화풍을 수용한 고령 지역의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셋째, 고령 지역에서 전개된 의병운동은 초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초기 의병은 박정완 등의 의병장들이 각기 생활 근거지 주위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다 1592년 5월부터 김면 군으로 조직화되었다. 후기 의병은 김면이 義兵都大將이 된 이후로 전투는 소강상태였으나, 고령 지역은 경상우도의 의병을 총괄하는 김면과 고령 지역을 관할하는 정인홍이 활동하면서 경상도 전체의 의병을 주도하였다. 한편 고령 지역의 의병운동은 활동 영역이 초기에는 고령 중심의 지역방위군을 형성하여 낙동강과 인근 지역을 방어하였으나, 후기에는 김면의 휘하에서 경상우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서 광범위한 활동을 하였다.

임진왜란 시기에 고령 지역에서 지속된 의병운동은 재지사족들과 민들의 생활 터전을 지켜냈으며, 일본군을 격퇴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의병 해체 후에도 고령 지역의 민들은 귀농하여 농사를 지음으로써 명군과 관군에 군량을 조달하는 국가 회복의 중추로서 역할을 하였다.

주제어

임진왜란, 고령, 의병운동, 김면, 경상우도, 정유재란

1. 머리말

조선중기에 있었던 임진왜란은 역사상 최대의 국난이었다. 지금까지 임진왜란에 관한 연구는 많은 진척을 보였으며,¹⁾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임진왜란

1) 임진왜란에 대한 연구사로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李章熙, 「壬辰倭亂」, 『韓國史論』 4, 國史編纂委員會, 1981; 「倭亂과 胡亂」, 『韓國史研究入門』 제2판, 한국사연구회 편, 1987; 오중록, 「壬辰倭亂~丙兵胡亂時期 軍事史 研究의 現況과 課題」, 『軍史』 38, 1999; 박재광, 「임진왜란 연구의 현황과 과제」,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北島万次, 「豊臣政權の朝鮮侵略に關する學說史的檢討」, 『豊臣政權の對外認識と朝鮮侵略』 校倉書房, 1990.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밝혀지고 있다.²⁾ 그러나 임진왜란이 국가 차원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비록 전근대사회의 역사기록이 다양하였다고 할지라도 서술 내용이 중앙의 왕조 중심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행해졌던 각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각 지역의 구체적인 임진왜란사 연구는 전체의 임진왜란사를 복원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³⁾

일반적으로 임진왜란으로 불리고 있는 임진왜란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된다. 그것은 임진왜란 개전기, 강화회담 시기, 정유재란 시기로 나눌 수 있다.⁴⁾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기구분에 따라서 임진왜란 전체 시기에 경상우도의 전략적 요충이었던 高靈 지역에서 의병운동을 통해서 전란을 극복하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임진왜란 시기에 고령 지역은 일본군의 진격로 가운데서 中路에 위치하고 있었다. 때문에 고령은 임진왜란 개전 초기부터 일본군과 직접적인 전투가 있었던 지역이었으며, 아울러 적극적인 의병운동도 초기부터 일어나 전개되던 곳이었다. 둘째, 강화회담 시기에도 고령에서는 일본군이 후퇴하면서 지속적으로 주둔하였기 때문에 많은 약탈을 당하였으며, 조선과 명군의 추격과 주둔으로 많은 부담을 졌던 지역이었다. 셋째, 정유재란 시기이다. 정

2) 이형석, 『임진전란사』 상~하, 임진왜란사간행위원회, 1974 ; 『임진전란사』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7 ; 경상북도, 『경북의병사』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90 ; 임란호국영남추의단보존회, 『임진영남의병사』 譜文社, 2001.

3) 지금까지 지역 단위의 임진왜란사 연구를 진행한 지역으로는 경상도의 고성, 양산, 울산, 합천, 사천, 경주, 고령, 전라도의 남원, 화순, 진도, 진안, 충청도의 금산, 경기도의 고양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고령의 경우 고령문화원, 『송암선생 일대기』에서 고령 지역의 의병운동을 다루었다.

4)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발발하였으며, 1597년 1월 정유재란이 재발하여 1598년 11월 일본군이 퇴각하였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 전체를 임진왜란이라 부른다. 그리고 전쟁 초기부터 강화회담이 평양, 서생포, 함안 등지에서 여러 차례 열렸으나, 1593년 7월부터 1596년 사이에 강화회담이 본격적으로 열렸다.

유재란은 한반도의 下三道를 일본군의 領地로 삼는 데에 전쟁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전라도의 진격로에 위치하였던 고령은 일본군에 의해 많은 피해를 당하였다. 이때도 고령 지역에는 일본군의 주둔과 활동이 빈번하였으며, 명군과 조선군의 지속적인 추격으로 전투가 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임진왜란 시기에 고령 지역이 차지하는 전략적인 위치와 의병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임진왜란 시기에 고령 지역에서 일어난 의병운동을 초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의병의 구성, 조직, 활동을 살펴서 그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2. 고령의 위치와 창의 배경

1) 고령의 위치

전쟁에서 요충지의 점령 문제는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였다. 임진왜란의 승패를 좌우한 요충은 경상우도와 남해안 지역이었다. 남해안은 李舜臣 장군의 수군이 지켰으며, 경상우도는 주요 의병장들과 일부의 관군이 지역을 사수하는 데 진력하였다.⁵⁾ 전쟁사적으로 경상우도는 임진왜란 전기간을 통하여 일본군의 최초 침입지이자, 후방의 보급 기지로서 일본군에게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었다.⁶⁾ 조선의 입장에서도 경상우도는 일본군의 연락과 보급망을 차단하고, 회복의 근거지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곳이었다. 이 때문

5) 대표적으로 경상우도 3대 의병장이었던 의령의 郭再祐, 함천의 鄭仁弘, 거창의 金沔이 활약한 곳은 낙동강이었으며, 이밖에 함안의 李瀾 등 40여 명의 의병장들도 이 지역 출신이었다.

6) 허선도, 「임진왜란의 극북과 嶺右義兵—그 전략적 의의를 중심으로—」, 『진주문화』 4, 진주교육대학교, 1983; 줄저, 『임진왜란과 경상우도의 의병운동』, 해안, 2002, 61-73쪽.

에 경상우도는 치열한 격전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임진왜란 개전기에 경상우도가 중요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었다. 먼저 임진왜란 시기에 경상우도의 요충에서 전개되었던 전투의 전쟁사적 의미는 일본군의 호남 진출을 지연·방어시킨 점이다. 원래 일본군은 육상운송법이 발달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하여 해로를 통한 원거리운송에 나서려 했으나, 해전에서 거둔 李舜臣의 승리는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에 일본군은 이미 점령한 경상좌도를 기반으로 하여 우도를 점령하고 나아가 곡창지대인 호남을 차지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⁷⁾ 이런 점에서 경상우도의 미점령지가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는데, 고령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왕조의 입장에서조차 경상우도에 招諭使를 파견하여 의병을 창의시키고 관군과 의병의 상충된 입장을 조정하게 했다.⁸⁾ 金誠一은 진주는 경상우도의 방어거점이며, 곡창 호남을 지키기 위한 요충으로 파악하였으며, 나아가 金誠一은 진주는 호남의 保障이므로 진주가 없으면 호남이 있을 수 없고 호남이 없으면 나라는 그만이라는⁹⁾ 적극적인 인식을 보였다.¹⁰⁾

또 의병장들도 전략적인 측면에서 경상우도를 중시하였다. 대표적인 예는 고령 출신의 의병장 金沔이 임진년 7월에 우척현전투를 할 때의 인식에 나타난다. 金沔은 지례의 일본군이 우척현을 넘어려 하자 居昌을 보전하지 못하면 곧 열두엿 고을이 보전하기 어렵다 하고, 드디어 장수를 정하여 고령을

7) 처음에 일본은 安國寺惠瓊 등은 의령을 지나 곧바로 진주로 진격하려 했지만, 郭再祐 군에 의해 좌절되자 우회로를 통해서라도 호남으로 진격하려 했다. 특히 8도 분군 이후에는 개령에 주둔했던 毛利輝元の 군과 惠瓊의 별군, 小早川隆景의 군이 호남 진출을 계속 추진하였다.

8) 『선조실록』 권29, 25년 6월 병진.

9) 李魯, 『龍蛇日記』.

10) 정진영, 「경상도 임란 의병의 활동과 의의」, 『지역과 역사』 18, 부경역사연구소, 2006, 240-253쪽.

지키게 하고, 자기는 거창의 군사를 데리고 지례의 적을 방어하겠다고¹¹⁾ 하였다.

다음으로 고령은 낙동강의 운송로 확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지역이었다. 이것은 전쟁 지역이 북쪽으로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었다. 때문에 경상우도 의병장들의 활동은 주로 낙동강 유역을 사수하는 데 있었는데, 이것이 경상우도 의병운동의 진정한 의의였다.

병력을 나누어 牛峴 馬嶺을 지키게 하고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高靈에 나가 진을 쳤다. 적이 강을 따라 내려온다는 것을 듣고 맞아 공격하여 드디어 배 두 척을 잡고 적 800여 명을 베었는데, 적의 선박에 실려 있는 것은 모두 內帑庫의 보물이었다.¹²⁾

이 자료는 金滸이 낙동강에서 일본군의 전리품을 되찾은 사실이지만, 의병들의 활약이 일본군의 낙동강 왕래를 가로막음으로써 그들의 왕래가 쉽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시에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하여 호남으로 침략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였다.¹³⁾ 그것은 정상로와 우회로로 구분할 수 있다. 정상로에는 대략 세 경로가 있었다. 첫째는 창원·함안을 지나 정암진에서 남강을 건너 의령·삼가·거창 방면을 거쳐 안음에서 육십령을 넘어서 웅치로 나가거나, 거창에서 내려와 함양에서 팔랑치를 넘어가는 길이다. 둘째는 창원·진주로 진출하여 단성·산음을 거쳐 함양에서 팔랑치를 넘어가거나, 함양에서 거창 쪽으로 접어들어 안음에서 육십령을 넘는 길이다. 셋째는 진주에서 평야지대를 따라 하동을 거쳐 섬진강을 건너 광양·구례로 나가는 길이다.

11) 『연려실기술』 권17, 선조조 교사본말 총론 의병.

12) 『연려실기술』, 선조조 교사본말 김면조.

13) 출처, 『임진왜란과 경상우도의 의병운동』, 61-73쪽(혜안, 2002).

우회로에는 영산·창녕에서 낙동강을 건너 초계·합천을 지나 거창에 이르는 길, 창녕을 지나 적포에서 낙동강을 건너 합천·거창에 이르는 길, 더 북쪽으로 올라가 무계를 건너 고령·성주에서 거창으로 나가는 길, 또는 지례에서 우척현을 넘어 거창에 이르는 길, 지례에서 부항현이나 대덕현을 넘어가는 길이 있다.

한마디로 영남과 호남의 경계에는 덕유산과 지리산으로 뺀 소백산맥의 준령이었기 때문에 이를 넘나들 수 있는 목[關要]은 섬진강, 팔랑치, 육십령, 부항현뿐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각 목에 도달할 수 있는 외곽의 요충이 의령의 정암진, 초계의 적포, 고령의 무계, 성주, 지례의 우척현이었다.

임진왜란 초기에 일본군은 지름길이라 할 수 있는 정상로가 의령에서 郭再祐 군에게 막힌 이후 鄭仁弘과 金沔 군에게 계속 막히자, 그 뒤부터는 우회로를 이용하여 호남으로 진출하려고 했다. 이 때문에 우회로의 각 요충이 갖는 전략적 위치는 정상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었으며, 실제 임진왜란 초기에 경상우도 의병들의 전투는 대부분 우회로의 요충을 지키는데 있었다. 招諭使 金誠一이 이곳에 주요 의병장을 배치시키고, 소모한 의병을 지원해 준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¹⁴⁾ 경상우도의 의병장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병운동을 전개한 것은 일본군을 물리칠 수 있는 근거지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가지며, 아울러 적의 후방에 혼란을 야기시켜 적의 병력을 분산시키도록 하였다.

한편 임진왜란 시기에 조선에 들어온 일본군은 5월 2일 한성 점령 후 일본군은 8도를 分地하여 각 장수들로 하여금 점령지 내의 軍政을 실시하도록 했다. 八道分軍法에 따라 경상도 지역을 담당한 군대는 제7군의 毛利輝元의 군사였으며, 각 지역은 그의 휘하 여러 장수들로 하여금 점거하게 하였다. 이들은 5월 10일 현풍, 18일 성주, 6월 12일에는 개령을 그 지역의 거점으

14) 허선도, 『鶴峰先生과 임진의병활동』, 『國譯 鶴峰集』 論考篇, 1976.

로 삼고서 낙동강 水路를 장악하여 후방으로부터의 보급을 원활하게 하며, 아울러 북상한 그들 군대의 후환을 없애려고 노력하였다. 이것이 일본군의 전략 중에서 중요한 하나였다. 그런데 이를 위해 경상좌도에 배치되어 주보급로를 맡았던 군사는 부산 8천, 양산·동래·밀양 1천 5백, 청도·대구 1천 5백명이었으며, 경상우도에는 창녕 5천, 부산 4천, 개령 1만, 선산 1천 5백, 상주 4천, 문경 2천명이었다.¹⁵⁾

다음으로 강화회담 시기에 고령 지역에는 명나라 군인들이 주둔하였으며, 일본군에 대비하는 산성이 축조되었다. 첫째, 명나라의 군대가 주둔하면서 일본군의 추격을 준비하였다.

근일 경상 좌우도의 형세가 한결같이 危迫합니다. 우도는 진주가 함락된 뒤에 여러 장수가 흩어져 갔으므로 인심이 붕괴되어 삼가·의령·함안·단성·하동·곤양·고성·사천·진해 등의 고을이 혹은 적의 소굴이 되기도 하고 혹은 적병에게 차단되기도 하여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신(유성룡)이 본월 5일에 고령에 도착하였는데, 적병이 이미 초계군에 들어왔습니다. 초계는 고령에서 수십 리의 거리인데, 그때 마침 유 총병이 대구로부터 오고 오 유격이 선산으로부터 달려와서 고령의 경계와 합천에 나누어 주둔하였기 때문에 적병이 머뭇거리다가 물러갔습니다.¹⁶⁾

둘째, 경상우도의 요충으로서 산성이 축조하여 일본군의 재침에 대비하는 지역이었다.

삼가 전교를 만들고 신들도 전부터 반복해서 헤아려 보았습니다마는, 오늘의 사세는 하루가 시급하여져서 요해지 설치에 힘이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잇고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宋 經略의 劄付 내용에 計開한 곳은 특히 십분의 일쯤이었습니다. 백성의 힘을 조금이라도 辦出할 수 있다면 유독 대구·인동 등지만이 아니

15) 李炯錫, 『임진왜란사』 상, 1974.

16) 『선조실록』 41권, 26년 8월 2일 계미.

라 삼가·고령·합천 가야산·안음 등지의 산성도 모두 천험이므로 잘 수축하여 근처의 백성을 모아 들어가 지키게 하고나서 식량을 모두 없애치우고 대비한다면 적병들도 두려워 꺼릴 것이니, 이런 일이 제일 시급한 일입니다. 대개 오늘날 믿고 있는 것은 중국군이 우리의 障蔽가 되어주는 것인데, 지금 듣건대 조금씩 철수하고 있고 적병들은 더욱 굳게 주둔하고 있다니, 앞으로의 일이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시급하게 현재의 사세를 통렬하게 진술하여 군대의 주둔을 청하기도 하고 군량의 증가를 청하기도 하여 더욱 시기에 맞추어 區處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한다면 미치지 못하게 될 듯싶습니다.¹⁷⁾

이에 산성 축조의 일은 도원수 權慄에게 명령을 내려서 경상좌도방어사 郭再祐로 하여금 전적으로 관장하게 하였다.¹⁸⁾

셋째, 일본군의 추격을 위한 군사적 훈련과 군사를 양성하는 지역이 되어 조선이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는 지역이었다.

화약·조총·三眼鏡을 재력에 따라 많이 만들어 충분히 훈련시키고 독려하며, 모집한 군졸은 명단을 기록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그 능력 여부를 시험하여 상벌을 시행하며, 수령은 각별히 계문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우도는 합천·곤양·고령·진주 등 조금 재력이 축적되어 있는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훈련하되 한결같이 사목에 의거하여 시행할 것을 별도로 경상감사 韓孝純에게 하서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¹⁹⁾

마지막으로 정유재란 시기에도 고령 지역은 일본군의 주요 침입로인 중로로 간주되어 李元翼과 權慄이 주둔하면서 대비를 하였던 지역이었다.²⁰⁾

당초 왜적이 직접 서울로 쳐들어올 기세가 보일 때 성주와 고령은 경상도의

17) 『선조실록』 43권, 26년 10월 16일 병신.

18) 『선조실록』 46권, 26년 12월 21일 경오.

19) 『선조실록』 49권, 27년 3월 23일 신축.

20) 『선조실록』 87권, 30년 4월 21일 신사.

中路로서 요충이 되므로 배신 李元翼과 權慄이 두 곳에 나누어 주둔하였습니다만, 원래 이들은 직접 싸우는 장수가 아니므로 다만 군사를 나누어 지시하여 동쪽 서쪽의 두 길을 절제해서 함께 적들이 올라오는 길을 막도록 도모하는 임무를 맡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중로의 왜적이 함천과 초계 등의 길을 따라 남원으로 올라오자 이원익과 권율은 왜적에 막혀 차단당했으나, 남원을 구원하지 못한 것은 그 형세가 서로 미치지 못해서입니다. 그 후에 왜적이 충청도에 침범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거느리고 공주로 올라와서 참획을 많이 하였으니 그 실정은 도망하려 함이 아니었습니다.²¹⁾

이에 명나라 군사가 집중적으로 주둔하였다. 중로는 부총병 李如梅와 원임 유격 塗寬은 赫三聘의 군사 3천을 거느리고 선산에 주둔하고 있으며, 浙兵遊擊 葉邦榮은 군사 1천6백 명을 거느리고 선산, 원임 유격 盧得功은 安本立의 군사 2천6백 명을 거느리고 성주와 고령 사이, 절병 유격 茅國器는 절병 2천9백 명과 密雲兵 1천 명을 거느리고 성주와 고령 사이, 원임 부총병 李寧은 李如梅의 遼兵 2천8백 명을 거느리고 상주에 주둔하고 있었다.²²⁾ 명나라 군사가 주둔하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많은 부담을 져야 했다. 그리고 정유재란 시기에도 일본군의 약탈을 계속해서 당하기도 하였다.²³⁾

2) 창의 배경

조선시대에 경상도는 경상우도와²⁴⁾ 경상좌도로 구분되었다. 1407년 처음으로 경상도는 행정·군사상의 편의를 위하여 낙동강 좌·우측을 좌도와 우도라 하였다.²⁵⁾ 이것은 군사체제인 鎭管體制에 반영되어 1499년 경상우도

21) 『선조실록』 93권, 30년 10월 2일 기미.

22) 『선조실록』 98권, 31년 3월 29일 갑인.

23) 『선조실록』 102권, 31년 7월 30일 계축.

24) 경상우도는 世宗 연간에는 28개의 군현, 경상좌도는 36개의 구현이었다.

25) 『태종실록』 권14, 7년 9월 을축.

는 상주진, 진주진, 김해진 중심으로 편제되었다. 고령 지역은 경상우도의 상주진관에 속했다.

〈표 1〉 경상우도의 진관체제

우병사	경상우도	창원	상주진관	성주 선산 김산 개령 지례 고령 문경 함창
			진주진관	합천 초계 함양 곤양 거창 사천 남해 삼가 의령 하동 산음 안음 단성
			김해진관	창원 합안 거제 칠원 고성 웅천

한편 임진왜란 발생 직전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⁶⁾ 조선 중기에는 전국적으로 인구수의 증가, 토지결수의 안정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문제가 된 것은 지방의 경우 실제 토지결수와 인구수가 16세기 이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산출한 인구수와 토지결수에 문제가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직접적으로는 隱結과 白紙徵收가 늘어난 때문이었다. 때문에 경상우도의 경우도 16세기 이후 인구수는 실제 증가하였지만, 부세의 대상이 되는 인구수는 줄어들었다. 한편 토지결수에서도 절대면적은 거의 일정하였지만, 농민의 유리·도망으로 실제 경작지는 감소하였다. 그것은 경상좌도의 언양과 예안현의 경우를 통해서 상당수의 토지가 陳田化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령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조선 전기에 고령 지역은 호수가 287호, 인구수가 1,722명으로 파악되었으며, 墾田은 水田 870결, 旱田 1,307결로 모두 2,177결이었다.²⁷⁾

수취체제의 변화에서는 많은 모순이 나타나고 있었다. 첫째, 공납제의 모순이 심하였다. 공납제의 모순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을 進上하는 폐단이었으며,²⁸⁾ 공납의 양이 많았으며,²⁹⁾ 防納의 폐해를 유발하였다

26) 『임진왜란과 경상우도의 의병운동』, 27-49쪽; 정진영, 「경상도 임란 의병의 활동과 의의」, 『지역과 역사』 18, 부경역사연구소, 2006, 240-253쪽.

27) 『세종실록』 지리지, 경상도 고령현.

는 점이다.³⁰⁾ 고령 지역의 경우 朴聃孫은 高靈의 京在所 員으로 본 고을에서 받치는 草菴을 방납하고 그 값을 민간에서 거두어 썼다.³¹⁾ 다음으로 공납제의 변화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중간층의 개입 문제였다. 즉 방납의 비리에는 서리의 농간이 크게 작용하였다. 曹植은 戊辰封事에서 직접적으로 胥吏亡國論을 주장하였다.³²⁾

둘째, 군역제의 모순이다. 15세기 保法에 의한 軍役制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16세기에 들어 크게 변동하면서 군역제의 폐단이 발생하였다. 특히 군역제에서는 수군과 보군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는데, 경상도의 경우 잦은 왜변으로 인한 일본의 노략질과 함께 심각한 문제였다. 종종 연간에 경상도에서는 水軍, 步軍, 選上, 其人의 폐단이 지적되었다.³³⁾

특히 지방 軍營에서도 留防軍에 대한 放軍收布制가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³⁴⁾ 경상우도에서도 軍役 대신에 布를 내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일방적으로 立役을 면제시키고 布를 거두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첫째, 代立價의 과중이 문제였으며, 이로 인하여 軍戶의 파피가 초래되었다.³⁵⁾ 둘째, 番價의 가중이 유망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³⁶⁾ 셋째, 番價의 고통은 隣徵과 族徵의 원인이 되었다.³⁷⁾ 실제 경상도의 경우 군역 징수의 폐단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나머지 백성들이 군역의 징수를 부담하게 되자 장정의 숫자가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中宗 연간에는

28) 『중종실록』 권19, 8년 10월 을묘.

29) 『명종실록』 권16, 9년 4월 정유.

30) 『선조실록』 권15, 14년 1월 신묘.

31) 『중종실록』 권28, 12년 6월 경신.

32) 『南冥集』 권2, 戊辰封事.

33) 『중종실록』 권4, 2년 11월 신유.

34) 『중종실록』 권13, 6년 2월 기유.

35) 『중종실록』 권20, 9년 2월 계축.

36) 『중종실록』 권62, 23년 8월 계축.

37) 『중종실록』 권97, 37년 1월 기사.

1/3-2/3가 없어졌다.³⁸⁾ 조선 전기에 고령 지역의 正軍數는 시위군 27명, 영진군 11명, 船軍 218명으로 모두 256명이었지만,³⁹⁾ 군역제의 모순이 일반화되고 있었다.

셋째, 부역제의 모순이다. 조선 전기의 부역제 가운데 경상우도의 모순점은 築城 문제에 나타나고 있었다. 조선 전기에 이미 放軍收布로 수군의 허약화가 진행되자, 1485년에 경상우수영 관할 영역에서 海防 築造가 대대적으로 있었으며,⁴⁰⁾ 방어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 그렇지만 일본군의 침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경상우도에서 행해졌던 성의 수축,⁴¹⁾ 군사 훈련 등은 민의 불평을 초래하고 있었다. 특히 築城問題로 인한 민들의 불만은 대단하였다. 일본군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성을 쌓는 것이 도리어 경상우도 민의 불만을 고조시켰다.⁴²⁾ 경상감사 金睟는 더욱 힘을 다해 봉행하여 축성을 제일 많이 하였다고⁴³⁾ 한다.

이처럼 임진왜란 전 경상우도의 조세제도의 징수 과정에서 나타난 모순은 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또 군사제도는 민의 유망으로 인한 실제 군사수의 감소, 軍役制에서 代役制와 納布制 실시, 군사체계는 진관체제에서 제승방략체제로 변화되고 있었다. 특히 경상우도는 부담이 큰 수군의 숫자가 많았으며, 육군의 경우에는 番上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민의 유망을 심화시켰다. 그러나 임진왜란 직전 경상우도의 상황에서 주목할 점은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나타난 군역 조달 체계의 변화로 인한 身役에서의 해방이 민의 성장으로만 작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군역 부담이 민에게 전가되어 모순을

38) 『중종실록』 권24, 11년 3월 무신.

39) 『세종실록』 지리지 경상도 고령현.

40) 『성종실록』 권171, 15년 10월 계미.

41)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면 경상도의 67개 군현에 27개의 성곽이 있다.

42) 吳希文, 『瑣尾錄』 권1, 상권 壬辰南行日錄.

43) 『선조수정실록』 권25, 24년 7월.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때문에 官主導의 항쟁은 불가능한 형편이었으며, 의병이 반침략의 구심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고을 수령의 무능과 아전들의 횡포는 백성들에게 원망을 초래하였는데, 고령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예를 들면, 고령현감 鄭光翼은 가혹하게 거두어 사사를 영위하였으며,⁴⁴⁾ 고령현감 崔世德은 노쇠하고 정신이 혼미하여서 職事를 돌보지 않으므로 아전이 틈을 타서 간사한 짓을 하여 부림이 번거롭고 무거워서 백성들이 원망하였으며,⁴⁵⁾ 고령현감 權鸞은 관의 직무를 오로지 下吏에게만 맡겨 처리하는가 하면, 또 탐비한 일이 많아 사용하는 모든 물품을 민간에서 징수하였다.⁴⁶⁾

3) 의병 기반

임진왜란 시기에 전쟁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우도에서 의병활동이 발생하여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의병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반적으로 임진왜란 시기의 의병활동은 전국적인 단위가 아니라 거주지의 군현이나 지역 단위로 진행되었으며, 의병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것은 생활 권역을 중심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이 在地士族의 등장이다. 16세기 이래 계속된 士族의 지주적 성격의 강화, 士禍로 인한 낙향 관료의 증가, 재지사족의 향촌기반 확보는 궁극적으로 16세기 후반 이후 사림정권의 창출 기반이 되었으며, 사림세력의 향촌에서의 재지적 기반은 임진왜란 당시에는 창의·기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⁴⁷⁾

실제 경상우도의 의병활동은 향촌사회의 주도세력이었던 在地士族들이 주

44) 『중종실록』 51권, 19년 8월 29일 신유.

45) 『중종실록』 89권, 33년 11월 6일 병자.

46) 『선조실록』 15권, 14년 6월 21일 계축.

47) 이태진, 『한국사회사연구』, 지식산업사, 1986.

도하였는데, 이들은 각 지역에서 세력기반을 확보해 온 계층들이었다. 그들은 재지적 기반을 토대로 해당 지방민들과 연계해서 의병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의병 구성과 조직의 人的·物的 資源과 軍糧은 해당 지역에서 직접 조달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지방민의 지지가 필수적이었다.⁴⁸⁾ 때문에 해당 지역에 경제적 기반과 鄉權을 동시에 장악하고 있던 士族 상호간의 결합과 향촌지배 조직을 통한 하층민의 동원이 가능할 수 있었던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고령 지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高靈의 경우 申·朴·李·金·兪氏가 유력한 사족이었다. 이러한 土姓士族 외에 來往하여 정착한 在地士族들도 많았다.⁴⁹⁾ 재지사족들의 기반이 의병운동으로 연결된 측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사상적 기반이다. 경상우도는 士族의 기반이 강했던 지역으로 사족들은 일찍부터 經世之學으로서 性理學을 수용하고 있었다. 특히 成宗 연간 이후에는 金宗直의 족적이 미치는 곳에는 士林派가 형성되었으며, 경상우도 전역으로 성리학은 확대되었다.⁵⁰⁾ 이러한 학문적 분위기 속에서 南冥 曹植이 출현함으로써 경상우도의 학문은 절정에 올랐다.⁵¹⁾ 사실 南冥의 尙義와 主氣의인 기상과 학풍은 경상우도인의 기질과 결부되고 있었으며, 그의 門徒들에게 영향을 주어 경상우도는 南冥學派의 본거지가 되었다. 일차적으로 경상우도의 의병활동은 남명학파의 기반 위에서 가능하였다. 남명은 군사문제에도 직접적인 관심을 가졌으며,⁵²⁾ 제자들에게 武를 중시하여 가르쳤으며,⁵³⁾ 나

48) 김석희, 「곽재우의 기병과 사회적 기반」, 『망우당곽재우연구』 2, 망우당기념사업회, 1989.

49) 대표적인 경우가 성주의 金宇顛과 鄭述, 고령의 琴柔 등이었다.

50) 이수진, 『영남사림파의 형성』, 영남대 출판부, 1979;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8.

51) 김충렬, 「생애를 통해서 본 南冥의 爲人」, 『대동문화연구』 17, 1983.

52) 『南冥集』 권5, 祭文 鄭述.

53) 『南冥集』 師友錄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金大有와 林薰이 무예에 관심을 가졌으며, 南冥이 郭再祐에게 兵법을 전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靑莊館全書』 권20, 邪亨遺稿 紅衣將軍傳).

아가 임진왜란을 예견하고 제자들에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문제도 제출하기도 했다.⁵⁴⁾ 때문에 남명의 제자들은 병사에 익숙했다. 이것이 임진왜란 당시에 창의를 직접적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스승의 영향을 받은 남명 제자들은 행동을 요구하는 亂世에 두드러진 활동을 펼쳤다. 그의 門人으로 임진왜란시 의병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람은 郭再祐(宜寧), 鄭仁弘(陝川), 金沔(高靈), 李澣(咸安), 盧欽(三嘉), 李大期(草溪), 郭越(玄風), 趙宗道(咸安) 등이었다.⁵⁵⁾

고령 지역에서 남명의 제자와 교유인사로는 金沔, 裴紳, 鄭師賢이 주목된다.⁵⁶⁾ 정사현은 조식의 매부이자 문인으로 鄭有禮 형제가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켰다. 金沔은 金字顯·鄭述 등과 南冥을 일찍부터 찾아갔다. 특히 南冥이 그의 號를 지어준 사실,⁵⁷⁾ 벼슬길에 나서지 않았던 점⁵⁸⁾ 등에서 그가 초기에는 퇴계보다는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南冥學에 경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金沔의 초기 의병 지휘부가 참여한 郭越, 文緯 등도 남명의 제자였다.

둘째, 사회적 기반이다. 조선중기 향촌사회에서 재지사족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회경제적 기반이 임진왜란중의 의병의 募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15세기 무렵에 이르면 士族들은 상호간의 通婚을 기반으로 특권적인 계층으로 성장하였으며,⁵⁹⁾ 留鄉所·鄉約 보급 노력, 향교·서원 건립 운

54) 『南冥集』 권2, 擬策問題諸生.

55) 남명의 제자 중에서 총 50여 명의 의병장이 나왔다고 한다(崔完基, 「南冥 曹植과 北人性理學」, 『韓國性理學의 脈』 느티나무, 1989).

56) 김성윤, 「조선시대 성주권 유림층의 동향」, 『역사와 경계』, 158-163쪽.

57) 『松菴年譜』 戊辰 28세 9월과 『南冥集』 編年.

58) 金沔은 모두 다섯 차례나 孝行으로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1591년 잠시 工曹佐郎을 역임했을 뿐이다. 19세 때(1559년)에 南冥에게 수학한 후 과거를 포기하였다(『松菴年譜』).

59) 신흥세대부들이 신분적 지위향상의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世族의 배경을 가지는 부류와 정치적 입장이 같을 경우 이들과 通婚을 통해 제휴했으며 그러한 노력을 실제 기울

등을 통해 향촌사회에서의 기반 확립을 구체화시켜 나갔다. 임진왜란 당시에 의병활동의 주도층은 士族들이었으며, 이들이 門人과 從遊人의 호응을 얻은 다음 각자의 奴婢와 거주지의 鄉民을 동원하는 형태로 의병의 모병은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임진왜란 극복의 궁극적인 동력은 亂前에 士族들에 의해 행해졌던 향촌통제력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난에 즈음하여 士族들이 민들을 쉽게 결집시킬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⁶⁰⁾

16세기 후반의 향촌지배구조는 상층부의 결속과 하층부의 통제에 있었다. 고령 지역의 재지사족은 申, 朴, 李, 兪, 金, 白, 鄭이 토성으로 주목된다.⁶¹⁾ 먼저 고령의 대표적인 의병장 金沔 가문은 高靈金氏로 비교적 이른 시기였던 고려후기에 士族으로 성장하였으며, 그 뒤로 계속된 上京從仕를 통하여 재지적 기반을 다져 나갔다. 金沔家門은 조선 초기 이래 많은 文武科 급제자를 3명이나 배출하는 한편 거주지에 상당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전형적인 在地士族 가문이었으며, 성리학적인 학문 기반도 상당하였던 가문이었다. 고령김씨의 始祖인 金南得은 고려 恭愍王 때 일어났던 塔思帖木兒亂時 공민왕을 복위시킨 功으로 高陽府院君에 봉하여 졌고, 이때에 義城에서 高靈으로 分貫하게 되었다. 高祖였던 子肅은 刑曹參議로 高靈에 정주하여 살았으며, 曾祖 莊生은 兵曹參判을 지냈으며, 祖父 鐸은 正德 乙卯(1519)년에 文科에 급제하여 慶尙左兵使를 지냈다. 특히 그는 道學文章과 文武才略이 당대에 떨쳐서 晦齋 李彥迪과 道義之交를 맺었다. 父 世文은 慶源都護府使로 胡人의 침입을 격퇴했으며, 叔父 秀文은 永遠萬戶로서 野人의 침입을 막았으며 乙卯倭變 때 濟州牧使로서 왜적을 대파하여 漢城府判尹에 특진되고, 그 후 平安兵使가 되었으며 制勝方

였다고 한다(이태진, 「15세기 후반기의 「鉅族」과 名族意識」, 『한국사론』 3, 서울대 국사학과, 1976).

60) 구체적으로 士林 세력의 활동 기저를 교육기관이었던 書院의 건립과정에서 찾고 있다(이태진, 「임진왜란 극복의 사회적 동력」, 『한국사학』 5, 1983).

61) 이수건, 『영남사림파의 형성』, 영남대 출판부, 1979, 110-113쪽.

略을 창시하였다.⁶²⁾

고령에서 강력한 재지적 기반을 가졌던 金沔이 실제 의병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通婚圈이 상당한 기반이 되었다.⁶³⁾ 우선 金沔 가문의 통혼관계를 父系 4祖를 중심으로 살펴보면,⁶⁴⁾ 金氏(善山, 金海, 光州, 慶州), 李氏(全州, 全義, 完山, 星州, 星山, 江陽, 梁山), 朴氏(高靈, 密陽, 竹山), 鄭氏(草溪, 延日), 盧氏(交河, 嘉樹), 杞溪俞氏, 昌寧成氏, 昌寧曹氏, 鎭川宋氏, 八莒呂氏, 大邱金氏, 昌寧全氏, 莢陽南氏 등이다. 이처럼 金沔 가문은 낙동강 좌우를 중심으로 在地土族들과 중첩적인 혼인관계를 맺었는데,⁶⁵⁾ 이것이 의병 상층부를 형성하는 상당한 토대가 되었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현풍의 郭濬과 朴愷, 거창의 文緯와 尹景男, 고령의 朴廷琬과 朴廷璠 형제 등이다.⁶⁶⁾

한편 박정완 가문은 고령 박씨로 고려후기에 品官으로 성장하다 15세 朴炯이 세조 때 靖難原從功臣 된 이후 사족으로 성장하였다. 그는 세조 6년 北征軍功에 올라 노비 6口를 하사받는 등 관직의 승직과 함께 노비와 토지를 하사받음으로써 사족의 지위를 굳혀나갔다.⁶⁷⁾ 이때부터 고령을 중심으로 성주와 창녕 등의 재지사족들과 혼인을 하였고, 16세기에 朴潤 형제들은 조식·배신 등과 師友 관계를 맺으면서 학문적으로 성장하였다.⁶⁸⁾

다음으로 재지적 기반 위에서 土族들이 유대를 가질 수 있었던 향촌지배 기구는 교육기관과 유향소를 들 수 있다. 우선 居住邑에 설치되었던 鄉校와 각 지역에 보다 많이 설치된 書堂이나 書院을 통해서 사족들은 결합할 수 있

62) 『선조수정실록』 권25, 24년 10월 계사.

63) 이수진, 『忘憂堂全書』 解題, 1987.

64) 『高靈金氏世譜』 1922년 간행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이 가운데는 오늘날 같은 지역을 칭하는 것도 있어 중복되기도 하지만, 원자료에 충실하여 그대로 작성하였다.

65) 金沔의 曾祖 金莊生은 李魯(고성 이씨)의 曾祖妣의 祖인 李直之의 婿가 되었다(李魯, 『松巖世譜 四姓綱目』 固城李氏篇).

66) 郭越은 玄風郭氏로 현풍에서 세거해 온 재지사족으로 郭再祐의 재종숙이다.

67) 『세조실록』 권7, 3년 3월 병술; 6년 10월 경신.

68) 『고령박씨 도진 文淵齋 소제 고문권』, 1996.

었다. 실제 조선 초기 이래 교육기관으로서 각지에 설치된 향교와 서당은 의병구성의 일차적 요인이 學緣인 점에서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이다.⁶⁹⁾ 각 지역에 설치된 향교·서당은 儒生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어 募兵을 위한 통문을 돌리기에 적합하였다. 高靈의 경우 향교는 일찍부터 설치되고 있어서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⁷⁰⁾

또한 보다 강력한 사회통제와 사족의 결합은 留鄉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⁷¹⁾ 그런 과정이 鄉射堂의 건립과 鄉規의 제정으로 나타났다. 고령의 金沔은 임진왜란 발생시 鄉廳에 연락을 취하였으며,⁷²⁾ 뒤에 金沔 軍에 합류한 李得春이 高靈鄉案을 작성하였고,⁷³⁾ 金沔이 募兵의 과정에서 起兵有司로 각 지역의 사람을 임용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더욱이 임진왜란 직후에 작성된 고령향안에는 의병운동을 하였던 인사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李得春, 朴廷璠 등이다.

〈표 2〉 고령향안 萬曆 30年(1602)¹⁾

洪	李		朴	尹	孫	全				金				薛	崔	韓	鄭	郭	權	成	裴	宋	禹	
南陽	星山	安岳	高靈		星山	瑞興	高靈	慶州	一善	淳昌	陽川	清州	晉陽	苞山	安東		星山	金海						
1	1	2	1	6	12	1	1	6	2	4	5	2	1	1	4	1	4	1	2	1	1	3	1	1

69) 경상우도의 경우 임진왜란 전에 건립된 서원은 10곳에 불과하였다. 星州의 川谷書院, 咸陽의 濼溪書院(1552), 晉州의 德川書院(1576), 陝川의 伊淵書院(1587), 安義의 龍門書院(1583), 丹城의 道川書院(1567) 등이었다. 한편 鄭萬祚는 李泰鎭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서원의 성립기에 서원이 유향소를 대체할 수 있는 향촌기구는 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정만조, 「최근의 서원 연구 동향에 관한 검토」, 『한국사학논총』 19, 국민대 국사학과, 1997).

70) 난전에 향교가 사족들의 결집 장소였음은 경상우도의 사람들이 崔永慶의 신원문제를 논의한 데서도 알 수 있다(『松菴年譜』 萬曆 4년 7월).

71) 배기현, 「16세기 향촌지배질서와 유향소의 성격」, 『대구사학』 35, 1989.

72) 『松菴年譜』 萬曆 20년 4월 16일. “送侄弘遠於鄉廳 送弟滄于沿江 探問事機 卽傳書于金東岡鄭寒岡”

73) 『嶠南誌』 권14, 高靈郡 人物條 忠義篇.

한편 金沔은 鄉射禮를 통하여 인근 士族들과 상당한 유대관계를 맺기도 하였다.⁷⁴⁾ 한 예로 그가 직접 七洞精舍에서 개최한 鄉飲禮에는 東岡(金宇顛)·寒岡(鄭述)·大庵(朴愷), 茅溪(文緯), 存齋(郭越), 慕軒(河渾), 潛湖(尹景男) 등이 참석하였다. 당시 金沔이 교유한 인사는 鄭述, 金宇顛, 朴愷, 李起春, 趙宗道, 鄭崙壽, 吳健, 崔永慶, 李弘量, 郭越, 郭走日, 文緯, 朴廷璠, 金騁壽, 尹景男, 鄭惟門, 成彭年, 吳長, 鄭蘊, 河渾, 河沆, 鄭壽罔, 李弘器, 李弘宇, 李承, 李厚慶, 李道孜, 李大期, 姜翼文, 李舒, 金奉祖, 朴齊仁, 張顯光, 文勵, 鄭仁濬, 曹挺生, 曹挺立, 曹應仁, 李砲, 李魯, 盧欽, 金應聲 등이었다.⁷⁵⁾

한편 조선후기에 세워진 서원에 배향되는 인물들을 통해서도 대표적인 사족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고령에서는 道巖書院이 병오년에 세웠는데, 이곳에는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 金沔과 處士 李起春이 배향되었다. 또 文淵書院이 병자년에 세웠는데, 이곳에는 竹淵 朴潤, 處士 朴澤, 處士 尹奎, 鶴巖 朴廷璠, 梅軒 崔汝契이 배향되었다.⁷⁶⁾

마지막으로 전쟁을 당하여 직접적으로 鄉民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鄉約의 실시를 통한 士族 지배질서의 확립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상우도에서는 中宗 때 監司 金安國이 부임한 이후 향약이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며,⁷⁷⁾ 그 후 咸陽 儒生 金仁範의 상소로⁷⁸⁾ 전국적인 시행이 논의되었다. 이처럼 경상우도는 향약류의 시행이 선진적이었으며, 임진왜란 전후에 鄉約類가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었다.

경상우도 南冥의 경우 ‘毀家黜鄉’이라는 鄉約的 형벌을 최초로 시행하고 있음에서⁷⁹⁾ 상당한 향촌통제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鄉約類

74) 『松菴年譜』 萬曆 19년 4월.

75) 『松菴年譜』 嘉靖 45년 2월.

76) 『연려실기술』 별집 제4권 祀典典故 書院.

77) 『중종실록』 권27, 12년 3월 경인.

78) 『중종실록』 권28, 12년 6월 갑술.

의 시행은 재지사족들이 향촌기반을 확보·유지하기 위해서 학파나 지역을 뛰어넘어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 특히 경상우도에서는 재지사족들이 대지주인 경우가 많아서 향민의 노동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에 향약류가 널리 보급되었다.⁸⁰⁾

향약류의 시행에서 주목할 점은 조선 초기 이래 생활기반 속에서 존속하고 있던 村契類 등 基層民의 조직은 土族契나 鄉村契의 하부구조로 편입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속하고 있었다는 점이다.⁸¹⁾ 하층민의 성장을 전제로 한 洞約類의 광범위한 존재는⁸²⁾ 임진왜란시의 鄉兵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주목된다.⁸³⁾ 高靈의 경우 金守雍에 의해 鄉約契가 일찍부터 시행되고 있었다.⁸⁴⁾ 金守雍은 退溪門人으로 高靈에 거주하면서 「藍田呂氏鄉約之義」라는 10여 條의 鄉約契를 시행하였다.

셋째, 경제적 기반이다. 임진왜란 시기의 의병활동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경상우도의 재지사족들은 재지주로서 많은 전토와 노비를 거주지를 중심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경상우도의 在地土族들도 일찍부터 향촌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한편 그들의 경제적인 토대를 마련해 나갔다. 재지사족들은 上京從仕를 통해서 奴婢와 田畝를 증식해 나갔으며 거주읍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전답을 소유하였다.⁸⁵⁾ 16세기에 이르러 본격화되는 地主制의

79) 『선조수정실록』 권3, 2년 5월 ; 『인조실록』 권6, 2년 5월 병진.

80) 고석규, 「정인홍의 의병활동과 산림기반」, 『한국학보』 51, 일지사, 1988.

81) 『선조실록』 권7, 6년 6월 갑자.

82) 정진영, 「16세기 안동지방의 동계」, 『교남사학』 창간호, 1985 ; 김무진, 「조선중기 사족층의 동향과 향약의 성격」, 『한국사연구』 55, 1986 ; 박경하, 「왜란 직후의 향약에 대한 연구—고평동 동계를 중심으로—」, 『중대사론』 5, 1989.

83) 조선 중기의 민의 성장이나 군역제의 변화 과정에서 賤民 정책의 새로운 소산으로서 東伍軍의 성립에 주목하고, 그것이 面里制 아래서 村마다 소부대를 이루고 있어 僮徒契와 같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한다(윤용출, 「임진왜란 시기 군역제의 동요와 개편」, 『부대사학』 13, 1989).

84) 『慶州金氏大同譜』 권2, 行狀, 通訓大夫 吏曹正郎 葉齋先生行狀.

85) 이수건, 『영남사림파의 형성』 3장, 영남사림파의 경제적 기반, 1979.

성장과 확대 속에서 재지사족들도 토지의 확장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토지는 임진왜란시 군량의 조달에 기여하였다.

또 이런 상황에서 일찍부터 재지적 기반을 구축하였던 在地士族으로서의 경상우도의 의병장들은 거주 지역에 상당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募兵의 기초가 되었던 家奴의 인슬은 지주제의 성장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었다. 즉 경작을 위해 필요했던 家僮·佃戶에 대해서 지주로서 강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군사에 동원하기에 용이했다.⁸⁶⁾ 당시 경상우도의 의병장들은 대부분 보통 100~300여 명의 家奴를 거느리고 있었던 在地士族들이었다.⁸⁷⁾

구체적으로 고령 지역에서는 의병장 金沔이 직접 家僮 700명을 이끌고 나왔으며, 의병 400명을 모아 개산진을 지키다 뒤에 合軍한 朴廷琬이 家僮를 직접 이끌고 나왔으며 식량을 지급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고 고령 덕곡면 인곡리의 朴大福의 경우 逐出米 2,000석을 의병에 지원하였다. 이를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金沔 가문의 경우 경제적 기반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김면의 증조 金莊生이 소유했던 재산을 자손에게 상속한 분재기가 남아 있다. 이를 분석하면 전체 노비가 약 90여 구, 토지가 300여 두락에 이른다⁸⁸⁾ 한다. 이 분재기에서는 父邊 전래의 재산보다는 母邊 전래의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조선 중기의 사회적 관행인 혼인을 통해서 재산을 늘려간 모습을 보여준다. 이후 재산의 증감이 있었을 것인데, 임진왜란 발생 초기에 김면이 가족을 안음으로 諸從과 庶弟 등을 피신시킬 때 奴婢, 樵奴 15명을 팔려 보냈다는⁸⁹⁾ 기록에서 보면 김면 가문의 경제적 기반은 상당하

86) 김석희, 「곽재우의 기병과 사회적 기반」, 『망우당곽재우연구』 2, 1989.

87) 정진영, 「영대학보」 1983.

88) 박홍갑, 「송암 김면의 생애와 활동기반」, 『송암 김면의 생애와 의병활동』 46-48쪽.

89) 국사편찬위원회, 『송암실기연보』.

였음을 알 수 있다. 김면 가문에서는 증조 김장생이 자손들에게 나누어 분재기를 통해서 경제 기반을 살펴볼 수 있다.

〈표 3〉 金莊生의 子女許與文記의 노비와 전답 소유 규모⁹⁰⁾

종류	자녀										
	1子	2子	3子	4子	5子	6子	亡女1	亡女2	姜子	奴婢遺漏秩	逃亡秩
노비		6	13	7	12	13	2	2		12	5
전답		21	1-46	1-44	1-40	1-42	6	6	23		

다음으로 고령 개진면의 朴廷琬 가문의 경제적 기반은 朴潤의 許與文記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⁹¹⁾ 이 가운데 朴廷璧에게 주어진 것은 토지는 2結 83卜 9束이며, 노비의 경우는 奴가 18명, 婢가 11명으로 총 29명, 新奴婢秩은 노 11명, 비 7명으로 18명으로 합쳐서 29명이다. 이를 박정벽 형제 모두로 확대하면 개진면 일대에 많은 토지와 노비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표 4〉 朴潤의 許與文記⁹²⁾

지역 단위	訥井員	舌良員	牛村員	大盆員	都出員	杖竹員	경신년 加分	합계
	卜-束	116-46	71-9	24-61	47-7	39-18	39-18	2-5

90) 이 자료는 고령김씨문중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1537년(중종 32)에 작성된 것이다. 이 자료상에서 노비의 경우 母邊, 父邊, 買得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전답은 田, 畓, 代田 등을 포함한 것인데, 단위는 石-斗落 순서이다. 다만 1자의 경우는 자료가 완전하지 못하며, 전체 단위도 일정하지 않아 하나의 표로 제시하기에는 부정확한 면이 있다. 이 자료는 김장생 사후 8남매, 첩의 자녀 4명 모두 12명에게 분재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91) 고령박씨 도진파의 재산문건은 8건이 남아 있다. 이 가운데 중종 연간에 朴繼祖의 후처 유씨의 자녀 許與文記를 분석해 보면, 대략 전답이 1,850두락 정도 된다(『고령박씨 도진 문연재 소재 교문권』).

92) 朴廷璧 沒을 분석한 것이다. 고령 桃津 文淵齋 소장 고문서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전답의 단위는 卜-束이다. 박씨가문에는 이외에도 여러 장의 분재기가 보관되어 있다.

3. 초기 의병운동과 의미

임진왜란 시기 고령 지역에서 의병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발생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하였다. 그런데 임진왜란 시기의 의병운동은 당사가 중세 봉건 사회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⁹³⁾ 즉 당시의 의병은 구성면에서 살펴보면, 실제 의병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의병장들은 양반으로 지배계급이었으며, 의병군의 종속적 위치에 있었던 병사들은 대부분 양인, 농민, 노비층이었다.

임진왜란 시기의 의병에서 상하 계층이 상호 결합할 수 있었던 요인은 먼저 향토수호의식 때문이었다. 둘째, 鄉里를 중심으로 한 의병활동은 토착성이 강하였으며, 평소 자기 가족과 농토에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 農民軍의 환영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이러한 초기 의병의 활동 영역이 생활 근거지 주변이었음은 고령 의병이 싸운 전투와 활동 영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金沔이 싸운 중요 전투로는 茂溪 戰鬪, 牛脊峴 戰鬪, 居昌 부근 戰鬪, 星州戰 1~3차 전투가 있으며, 이 밖에 소규모 전투로는 沿江·開山浦·熊峴·木通·鼎岩津·蛇院洞·頭谷驛前·馬津에서의 單獨戰 등이 있었다.⁹⁴⁾ 이러한 전투를 수행한 지역은 고령과 거창·성주를 중심으로 거의 하루 내외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의병의 구성이 家奴·鄉兵 등 해당 지역에 기반을 가진 계층이란 점, 또 해당 지역의 지리에 익숙하여 전투의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의병들은 의병운동 초기에는 소규모로 각기 활동하였다. 고령 지역에서

93) 각 지역 특성과 관련하여 의병구성 문제를 밝힌 글로는 이석린, 「趙憲을 중심으로 한 임란초기의 의병분석」, 『又仁金龍德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9; 조원래, 「임란 호남의병과 의병지도층의 성격」, 『북악사론』 1, 1989 참조.

94) 정진영, 「송암 김면의 의병활동과 관련자료의 검토」, 『송암 김면의 생애와 의병활동』 고령군·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05.

의병운동을 하였던 인물들은 대부분 자신이 거주하던 거주지를 중심으로 가문 단위로 활동하였다. 대표적으로 金沔 가문, 朴廷琬 가문, 鄭尙禮 가문, 李得春 가문이다. 여러 기록에 나타나는 고령 의병장들은 아래와 같다.

〈표 5〉 임진왜란 시기 고령 출신 의병장

宣武原從功臣錄券			龍蛇應募錄	火旺山同苦錄	기타
1등	金 沔	贈判書	李春亨, 朴景鸞, 李永溶, 裴大綸, 朴元甲, 金聲律, 金鑣, 金聲徹, 金逢慶, 朴大任, 金鎭, 朴光先, 金沔, 鄭以禮, 鄭尙禮, 都遇, 朴孝先, 鄭有禮, 鄭遵禮, 崔汝契, 朴廷瑤, 洪錫疇	金應聖, 兪良佐, 金聲振	郭再鳴, 金瀼, 金應鑑, 金滄, 裴昱, 李永淑, 全永期, 全永世
	金弘遠	行護軍			
2등	朴大福	主 簿			
	朴廷琬	正			
3등	鄭尙禮	部 將			
	李得春	主 簿			

고령 지역에서도 임진왜란 초기에 의병은 생활 근거지 주위에서 각자 소규모의 자발적인 의병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였다. 金沔의 경우 초기에는 의병을 옛 동리에서 모으니 촌락이 온통 비어 형세가 소집하기 어려웠는데, 4월 22일 家僮들을 모아 혹은 창을 들고 혹은 몽둥이를 가지고 나선 건장한 장정이 79인이요, 여러 從姪이 15인이었다.⁹⁵⁾

朴廷琬의 경우 朴廷琬이 군사를 모집하여 김면을 따라갔는데, 재산을 털어서 군량을 공급하였고 활과 화살도 직접 마련하였으며, 전투에서는 상당히 공을 세웠다. 김면이 茂溪에서 승전한 것은 박정완의 힘이 컸는데도 공에는 참여되지 못하니, 사람들이 모두 애석히 여겼다는⁹⁶⁾ 기록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曷大坤의 치계에도 나타난다.

5월 23일에 적은 무리의 왜적들이 고령현 楓谷里에 침입했는데, 朴景祿·金

95) 『松菴年譜』 壬辰 4월.

96) 『연려실기술』 제17권, 선조조 고사본말 영남 의병.

應謙·鄭尙禮·孫浩·李千齡·崔景立 등이 먼저 왜적 4~5명을 쏘니 적이 퇴주 하거늘, 훈련봉사 洪傑이 돌진하여 그들을 베었습니다.⁹⁷⁾

그러나 이후 고령 의병은 김면을 중심으로 조직화되었다. 이에 짧은 시기에 金沔 군은 많은 군사를 결집시켰다. 의병 초창기에 군사를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참모가 된 사람들이 이끌고 온 家僮과 鄉民이 成軍의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다.⁹⁸⁾

먼저 家僮 700여 인을 인솔하여 起兵하니 원근에서 다투어 응모하여 왔다. 고령에 賊兵이 이르니 金沔은 고령이 殘少하다고 하여 드디어 거창으로 달려갔다. 그때 거창의 선비와 백성이 약간의 군사를 모아 가지고 있다가 金沔에게 붙었다. 郭越·文緯·朴廷璠·柳仲龍 등으로서 참모로 삼고, 朴愷으로서 군량을 모으게 하였다. 4~5일 동안에 군사 2,000여 명을 모았다.⁹⁹⁾

그렇지만 金沔이 정식 起兵한 5월 11일경에는 일본군이 계속 북상 중이었고, 일본의 침략 위협이 있었던 고을의 주민들은 모두 피난하였으므로 召募가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욱이 召募의 전제조건인 軍糧과 兵器의 확보를 즉각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급한 문제였다. 그래서 의병활동 초기에는 자신의 財産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였으며, 실제 초기의 군량 해결에 많은 기여를 했다.¹⁰⁰⁾ 金沔은 家僮 700여 명을 거느릴 정도로 상당한 경제력을 갖고 있었다.

97) 『선조실록』 27권, 25년 6월 28일 병진.

98) 『眉叟記言別集』 권26, 茅溪先生行狀.

尹景男, 『潛湖實記』 권下, 編年略. “壬辰四月 倭大入寇 公收募鄉兵 以應金義將沔”

99) 『慶尙巡營錄』, 『燃藜室記述』 所收.

100) 『寄齋雜記』, 한편 임진왜란을 당하여 家屬을 安陰 水勝洞으로 治送시킬 때 諸從, 內眷, 小幼 21명과 庶弟 田, 汶 및 奴婢 13명과 樵奴 萬石 등 3명을 함께 護送하였다(『松菴年譜』).

이런 와중에 1592년 5월로 접어들면서 경상우도에서는 朝命을 받들었던 招諭使의 노력에 힘입어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6월에는 전국적으로 의병이 봉기하여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명망 있는 의병장에게 投屬 하기도 하였으며, 해당 지방 監司·招諭使의 명을 받아 合軍하기도 하였다. 특히 경상우도에서는 金誠一의 名望과 활약에 힘입어 合軍하는 경우가 많았는데,¹⁰¹⁾ 이것이 의병의 군사수가 늘어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그런 다음 列邑에 通文을 돌려 의병을 선도하였다.

곧 거창으로 달려가서 郭越·文緯·金澹와 더불어 列邑에 통문을 돌렸다. 起兵有司는 安陰의 鄭惟明·成彭年, 咸陽의 盧士尙·盧士豫·朴選, 山陰의 吳峴·吳長·林應聘, 丹城의 李魯·金景謹·李惟誠, 三嘉의 盧欽·李屹·朴思濟, 宜寧의 李雲紀·郭再祐·郭斯 등이었다.¹⁰²⁾

이처럼 각 지역의 기병유사로 임명된 사람들은 모두 해당 지역의 유력 士族들이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공동체의식과 생활터전의 사수에 기반을 두고 通文을 돌렸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해당 지역의 명망 있는 士族들이었으므로 의병 상층부의 성격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경상우도의 의병활동에는 난전의 사족의 향촌지배책이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起兵有司들은 대부분 향정의 임원들이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金沔軍은 軍勢가 날로 늘어났다. 1592년 5월에 金沔은 2,000여 명으로, 1593년 1월에는 5,000여 명으로 大軍化하게 되었다.¹⁰³⁾ 짧은 시간에 대군화할 수 있었던 요인은 소규모 의병장의 歸屬과¹⁰⁴⁾

101) 대표적인 경우가 郭再祐軍에 三嘉의 尹鐸·吳雲軍이 合軍한 경우다(『忘憂堂全書』 부록 권3, 龍蛇別錄).

102) 『松菴先生遺稿』 권2, 補遺倡義事蹟.

103) 『선조실록』 권34, 26년 1월 병인.

104) 『난중잡록』 1, 임진 7월.

招諭使·巡察使의 지원으로 가능하였다. 金沔 군에는 거창의 卞渾이 鄉兵을 모아 金沔 군에 들어와서 전공을 세웠으며,¹⁰⁵⁾ 고령의 朴廷琬도 군사 400명을 이끌고 와서 휘하에서 싸웠는데, 자기 재산을 내어 군량을 조달하고 弓矢를 직접 마련하였다.¹⁰⁶⁾ 또 단성의 權世春도 군사 500명을 이끌고 와서 싸웠다.

한편 대규모의 의병을 유지하고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병의 군량 조달이 문제였다. 전 근대의 전쟁에서 군량의 원활한 공급은 전쟁의 성패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임진왜란 초기에 모병된 대군사를 먹이기 위해서는 의병 초기와 같은 상층부의 자체 조달은 불가능하였다.

일반적으로 군량의 조달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달되었다. 첫째, 官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군량을 조직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¹⁰⁷⁾ 둘째, 재지사족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였다. 의병장들은 의병 초기부터 군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서 군량을 모집하기 위해서 軍糧有司를 임명하여 해당 지역의 在地土族들의 도움을 받아 양곡을 수집해 조달하기도 했다.

壬辰 8월 1일 戊子에 王께서는 義州에 계시고 (중략) 大將 鄭仁弘과 大將 金沔, 正郎 朴愷, 博士 權濟가 軍糧을 거두기 위해 각 읍에 通文을 돌리고 각 읍의 責任有司를 선정하였다. 咸陽에는 盧士尙과 盧胄·鄭雲慶이고, 丹城에는 金景謹과 李惟吉이며, 三嘉에는 盧欽과 朴思濟 등이었다.¹⁰⁸⁾

셋째, 招諭使의 도움을 받는 경우로 招諭使의 典餉이 모은 곡식을 이용하는 것이었다.¹⁰⁹⁾ 넷째, 간접적으로 해당 지방민의 私儲를 이용할 수 있는 권

105) 이로, 『용사일기』.

106) 『來庵先生文集』 권2, 疏 辭尙州牧使疏 甲午 2월 초9일. “全致遠李大期全雨 在草溪 文勵李弘字李富春金應聖朴廷琬等 在星州高靈 贏糧散財 以先士卒 沿江欄截 同力攻戰 此數人者 未必非江右數邑之屏蔽 而亦未必非湖南一道之屏蔽也”

107) 『선조실록』 권28, 25년 7월 계유.

108) 權濟, 『權源堂實記』 壬丁日記.

한을 관으로부터 부여받아 해결하기도 했다.¹¹⁰⁾ 다섯째, 자체 조달방법이 동원되었다. 자체 조달방법으로는 집집마다 거두는 戶斂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방법,¹¹¹⁾ 해당 지역 선비들이 내는 義穀을 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용되었다.¹¹²⁾ 이외는 달리 군사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軍糧을 절약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의병이 해당 지역의 民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시에는 농경에 종사하다가, 전쟁시에만 모여 싸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숭공께서 요사이 머물러 계시는 山陰 등지에 官軍器와 官兵을 더 뽑아서 보내심이 어떻겠습니까. 供給할 일은 이미 參謀로 하여금 용도를 익히 살피게 했습니다. 그러나 射槍은 또한 3運으로 나누어 1運에 각각 十五日의 휴가를 준 뒤에 돌아올 때에 각자 양식을 준비해 와서 먹게 하였는데, 射手만이 擧事할 때부터 쉼을 쉬지 못했을 뿐입니다.¹¹³⁾

초기의 고령 의병은 5월에 金沔 軍을 중심으로 조직화되었다. 이것은 의병활동에 참가한 군사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효율적인 전투의 수행을 위해서 군대를 조직화하고 軍務를 분담할 필요성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먼저 金沔 軍의 초기 상부 조직이다. 1592년 4월 말에 기병하여 5월 11일 居昌에서 재지사족이 모아 놓은 군사와 합세하면서부터 金沔 軍은 조직화되기 시작하였다.¹¹⁴⁾ 각 전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人士가 침삭되었지만, 金沔 軍의 상부 조직을 구성한 인사의 면모는 다음과 같다.¹¹⁵⁾

109) 李魯, 『龍蛇日記』.

110) 이로, 『용사일기』.

111) 이로, 『용사일기』.

112) 이로, 『용사일기』.

113) 『松菴集』 書, 答上金鶴峰誠一書.

114) 『고대일록』에는 1592년 5월 22일로 되어 있다.

115) 金沔의 『松菴集』 권2, 先生遺稿 補遺 「壬辰同苦錄」과 「倡義略錄」 및 『宣武原從功臣錄券』, 기타 당시 壬亂關係 기록과 각종 邑誌의 기록에 나타난 것을 모아 실제 활동이 확인되는 것만을 취사·선택하여 작성한 것이다.

〈표 6〉에 나타난 인물들을 분석해 보면, 먼저 신분별로는 士族으로 보이는 자가 22명이고, 분명치 않은 자가 金瑄, 閔楊, 張士佺, 朴應星, 張應麟, 柳嗣弘, 李竹 등 7명인데, 이들은 대부분 전투에 직접 참여한 자들로서 각 전투지역의 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출신지역별로는 高靈 4명, 居昌 6명, 丹城 2명, 金山 2명, 玄風 2명, 咸安·星州·淸道·昌原·固城이 각 1명이며, 확실치 않은 것이 8명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倡義地인 高靈과 활약 근거지였던 거창이 합쳐 10명, 인근 지역인 성주·단성·김산·현풍·함안이 8명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다. 다만 먼 지역 출신의 사람도 보이고 있으며, 도망갔던 官吏 등이 招諭使에 의해 金沔軍에 보내져 의병군의 일원으로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이 金沔 軍의 조직상의 특징을 엿보게 해준다.¹¹⁶⁾

116) 黃應男은 鎭元부사로서 난 초기에 도망했다가 招諭使 金誠一에 의해 金沔軍에 보내졌으며, 김해부사였던 徐元禮도 같은 경우였다.

〈표 6〉 고령 지역의 초기 의병 조직

직책	성명	거주지	참고사항
의병장	金 沔	고령	前佐郎, 曹植·李滉 門人
참모장 書記	郭 越	현풍	曹植 문인, 郭再祐 再從叔
참모장 書記	文 緯	거창	曹植·鄭述 문인
참모장 書記	尹景男	거창	文緯와 교유
참모장 書記	朴廷璠	고령	禮賓寺 主簿, 鄭述 문인
참모장 書記	柳仲龍	거창	司馬試 합격
搜粟官	朴 惺	현풍	前佐郎, 前縣監
調軍	金 滄	고령	前參奉, 弟
往來謀劃	李 承	성주	
선봉장	卞 渾	거창	武科 급제
선봉장	金弘漢	청도	從姪
북병장	金 瑄		
북병장	李 亨	함안	判官, 武科
돌격장	朴廷琬	고령	士人, 거창현감
돌격장	鄭 庸	거창	士人
좌부장	黃應南	창원	濟浦 萬戶
우부장	閔 揚		
중위장	徐禮元		김해부사
돌격장	張士佶		
돌격장	朴應星		
主義	權世春	단성	司圃署 別提
주의	諸 沫	고성	前守門將
假將	孫承義	단성	前主簿
가장	權應星	금산	士人
召募官	呂大老	금산	知禮 縣監
軍官	張應麟	거창	
군관	孫敬宗		
군관	柳嗣弘		
射士	李 竹		전 判官

이처럼 金沔 군의 의병 상층부의 출신 지역이 일차적으로는 고령·거창 중심이었기 때문에 地域聯合軍이며, 이런 점에서 金沔 군의 성격이 지역방어를 위한 鄉土軍의 성격을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일반군사들인 農民·佃

戶·家奴 등은 일상생활 속에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결속력과 단결력을 가질 수 있었고,¹¹⁷⁾ 해당 지역 지리에 밝아 효과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실제 전투를 수행한 金沔 군의 의병의 하층부에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였다. 그들의 참여는 자발적인 경우와 반강제적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의병 상층부의 구성원들이 士族들로서 그들이 地主였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때문에 의병에는 많은 수의 佃戶와 노비들이 동원되었다. 현존하는 의병장들의 土地分財記에 나타난 경우와 비슷하게 金沔 자신이 가동 700여 명을 거느리고 의병을 일으킨 사실, 휘하의 參謀였던 朴廷璠이 家僮 수십 인을 거느리고 왔다는 사실에서¹¹⁸⁾ 家奴가 起兵의 토대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家奴들은 地主에게 강하게 隸屬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병에 상당히 용이하였다.

둘째, 거주지 촌을 중심으로 한 鄉民이 대다수였다.¹¹⁹⁾ 이 향민은 鄉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향토 보전과 그들의 삶의 터전인 생활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필요성에서 일어난 자발적인 小地域 민이다.¹²⁰⁾ 이들은 신분상으로 대부분 良人이었다. 金沔 군의 경우 직접 향토를 보전할 것을 기획하고 鄉兵을 일으킨 사실,¹²¹⁾ 동·서·남 面의 군사를 모은 사실을¹²²⁾ 통해서도

117) 『선조수정실록』 권26, 25년 12월.

118) 朴廷璠, 『鶴巖集』. “龍蛇島夷充斥 先生慷慨雪涕 與家兄參判公講廷璠倡義 赴松菴陣中共議招募 籌略多出人右 竹塢吳公龍蛇日記跋云 首事如種津之 朴某者是耳 率家僮五十餘丁 偵探洛江 遇賊於開山津 (下略)”

119) 임진왜란 시기의 의병의 募兵法은 7가지(家奴의 인솔, 門下生 등 儒生 相互間의 호응 참가, 士民이 鄉兵을 공동으로 소집, 官軍의 移屬, 朝廷이 諸元帥에게 下諭하여 의병을 소집, 官軍에서의 投屬者의 소집, 의병장 戰死 후의 소집)로 나누고 있다. 이 중에서 士民이 鄉兵을 공동으로 召集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였다(崔永禧, 『임진왜란 중의 사회동태』 1975).

120) 『연려실기술』 권17, 선조조 교사본말 총론 의병.

121) 『松菴先生實記』 권1, 祝文 告先墓文.

122) 『松菴先生實記』 권1, 倡義略錄

알 수 있다. 그리고 卞渾이 鄉兵을 일으켜 金沔에게 소속하였다.

셋째, 家僮을 제외한 賤民層의 참여이다. 이들은 해당 지역의 地利에 밝아서 의병의 주요 전술형태였던 遊擊戰을 통해 많은 전과를 올리기도 했다. 金沔이 居昌의 山尺 수백인으로 하여금 牛峴을 방어케 했는데, 많은 적들이 여러 번 진격했으나 이기지 못하여 거창 이북이 보전될 수 있었고 한다.¹²³⁾

넷째, 피난민과 도망병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도피했던 민들이 의병장에게 모여든 것은 의병장의 활약이나 그의 人望에 감복하여 모이는 경우.¹²⁴⁾ 招諭使의 召募로 촉발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향토 보전을 위해서 각 지역의 召募將에 해당 지역의 유력한 在地士族을 직접 임명하여 의병을 소모하였다.¹²⁵⁾

이러한 고령 지역 의병들의 초기의 주요 전투는 1592년 4월 이후 11월 까지로 살펴볼 수 있다.¹²⁶⁾ 이때는 개별 혹은 여러 관군이나 소규모의 의병과 함께 낙동강과 거창 인근의 일본군을 토벌하던 시기였다. 주요 전투로는 연강전투, 개산포(무계)전투, 우척현전투, 두곡(장곡)역전전투, 지례수복전투, 정인홍과 함께 한 성주전투, 김시민과 함께 한 사랑암전투, 방해현전투를 들 수 있다.¹²⁷⁾ 이 가운데 성주전투를 제외하면 대부분 승리를 거두었다.

123) 『선조실록』 권83, 29년 8월 경오.

124) 이로, 『용사일기』.

125) 『鶴峰全集』 壬辰救國篇, 左監司時狀; 郭走日, 『禮谷集』 권上, 書 代招諭使諭玄風任司諸人.

126) 김면 군의 전투지와 전투상황에 대해서는 정현재, 1995 「경상우도 임진의병과 전적 검토」, 『경남문화연구』 17; 정진영, 「송암 김면의 의병활동과 관련자료의 검토」, 『송암 김면의 생애와 의병활동』 고령군·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05; 노영구, 「임진왜란 초기 경상우도 의병의 성립과 활동 영역—김면(金沔) 의병부대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64, 한국역사연구회, 2007 참조.

127) 『송암실기』, 『송암유고』, 『고대일록』, 『용사일기』, 『모계선생일기』 등의 자료와 고령문화원 『송암선생 일대기』를 토대로 기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4. 후기 의병운동과 의미

고령 지역의 후기 의병활동은 金沔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경상우도의 의병을 총괄하고 있었다. 이것은 金沔이 경상우도 義兵都大將에 임명된 시점이었는데, 이후 그는 경상우병사가 되었다.¹²⁸⁾ 이런 시점의 의병의 성격은 官軍이었다. 이 시기에 金沔의 후기 의병에 대한 직접적인 통솔은 전쟁보다 순시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¹²⁹⁾ 이러한 모습은 전쟁이 차츰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金沔 군의 후기 의병 조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고령 지역의 후기 의병 조직¹³⁰⁾

직책	성명	지역
義兵都大將	金沔	고령
의병좌장	郭再祐	의령
의병우장	鄭仁弘	합천
招諭使(巡察使)	金誠一	안동
招募有司	金應聖, 鄭以禮	고령
참모장서기	文緯, 郭趨, 尹景男, 朴廷璠, 柳仲龍	거창, 현풍, 고령
調軍	趙宗道, 金滄	합안, 고령
典餉	朴惺	현풍
往來謀劃	李承	고령
先鋒將	卞渾, 金弘漢	거창, 청도
伏兵將	金瑄, 李亨	
上道衛將(巨濟府使)	金俊民	
下道衛將(昆陽郡守)	李光岳	
左部將(濟浦萬戶)	黃應男, 閔惕	
中衛將(金海府使)	徐禮元	
주부	權世春	단성
사사	李竹	
별장	鄭國祥	
衛將	韓應麟, 李厚慶, 李道攷	영산
가장	權應星, 孫仁甲, 孫承義	거창, 진주
성주모병관	李弘宇	고령
단성 招募官	權煒	

128)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4, 선조 25년.

129) 全致遠, 『壬丁日記』와 金誠一, 『鶴峰全集』, 정경운 『고대일록』에 나타나 있다.

130) 『松菴實記』와 『濯溪集』의 壬丁日記를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단성 召募官	權焯	
고령 假將	郭大成	해남
초계가장	鄭彦忠, 陳漢彦	초계
假守	郭走日	현종
召募官(知禮縣監)	呂大老	금산
영주위장	禹圖南	
풍기의병유사	安科	
안동의병	金松	
從事官	韓明胤, 朴而龍, 姜節, 慎秀乙, 文弘猷	황간, 회덕, 한성
外防將	全致遠	성주
군관	張應麟 외 28명	
諸義士	金穎男 외 57명	
親族義士	金滄 외 7명	

위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경상우도의 의병도 국가에 의해 일원적 편제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金沔 군의 후기 의병 조직의 특징은 경상우도의 의병이 金沔을 중심으로 일원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국가가 반란군이 될 수도 있는 의병을 흡수·통제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金沔 군의 후기 의병 조직표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지역적으로 경상우도 전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특히 경상우도의 상주권과 경상좌도의 일부 지역 인사들까지도 참여하고 있다.

좌도의 의병이 一直縣에 모여서 맹약할 때에 金垓를 대장으로 추대하였는데, 뒤에 金沔이 본도의 대장이 되었음을 듣고 의병 문서를 강을 건너 김면에게 보냈다. 김면이 열람하여 보니, 모두 유생들로 부대가 편성되었으므로, 이것들이야말로 참된 의병이라고 하였다.¹³¹⁾

둘째, 의병 구성 인사를 보면 각 지역에서 독자적인 의병활동을 하다 이미 관군으로 편입된 자나 관군의 장이었던 자가 예속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셋째, 각 지역의 의병장 사이의 관계가 정립되고 있는데, 경상우도의 대

131) 『연려실기술』 제17권, 선조조 고사본말 영남 의병.

표적인 의병장이었던 郭再祐와 鄭仁弘도 金沔의 예하에 편제되고 있었다. 즉 金沔이 義兵都大將으로 행차시 鄭仁弘은 그를 수행하였다.¹³²⁾ 이처럼 金沔군의 후기 의병 조직은 경상우도 의병장 상충부의 조직이었으며, 官軍의 일원으로서 정식 관군과 함께 편제된 이원적인 체제였다.

한편 국가에서 파악한 의병의 규모를 통해서도 고령 지역의 김면 군의 위상을 알 수 있다. 의병에 대한 국가의 장악과 함께 전국의 의병 수는 1593년으로 접어들면서 줄어들었다. 임진왜란 시기의 전국의 관군과 의병의 수는 경상도의 경우 관군 65,000명, 의병 12,000명이었다. 1593년에 파악된 경상우도의 관군과 의병의 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경상 좌·우도의 관군과 의병의 수¹³³⁾

관군				의병			
지역	관직명	성명	병력수	지역	관직명	성명	병력수
울산	경상좌도 절도사	朴 晉	25,000	창녕	의병장	成安義	1,000
안동	경상좌도 순찰사	韓孝純	10,000	영산	의병장	辛 岬	1,000
진주	경상우도 순찰사	金誠一	15,000	합천	의병장	鄭仁弘	3,000
창원	경상우도 절도사	金時敏	15,000	의령	의병장	郭再祐	2,000
				거창	의병장	金 沔	5,000
합계			65,000				12,000

이처럼 경상우도의 경우 관군이 30,000명, 의병이 10,000명이었다. 그러나 경상우도는 여전히 의병의 비율이 25%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았다. 이것은 임진왜란 초기에 관군의 패배를 대신하여 의병활동이 많은 전과를 거두면서 독자적으로 전개된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경상우도의 의병은 임진왜란 후기에 이르면 金沔과 郭再祐, 鄭仁弘을 중

132) 『灌溪集』 壬癸錄, “從金大將 留陣于宜寧嘉禮里 昌原府使張義國 熊川縣監李宗仁 宜寧縣監朴思齊 義兵左部將郭再祐 義兵右部將鄭仁弘”.

133) 『선조실록』 권34, 26년 1월 병인.

심으로 편제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숫자는 10,000명이었다. 이것은 관군이 정비되면서 국가에 의한 의병 통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김면 사망 이후 경상우도의 의병들은 郭再祐 중심으로 편제되었다. 광재우 의병의 후기의 구성은 관군으로 흡수·편제되면서 광범위하며 포괄적인 모습이었다. 국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의병을 통제하여 1594년에는 성주에서 郭再祐 의병대장, 李光岳 副將, 金德齡 左營, 洪季男 右營으로 임명하여 의병을 재조직하였다. 이것은 1593년 金沔의 사망 이후 경상우도의 의병 조직이 郭再祐를 중심으로 재편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의 의병은 사실상 官軍이었으며, 의령 지역의 인사들보다는 인근 고을의 인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즉 경상도 전체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역연합군이었다.

이에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경상우도의 성곽을 축조했던 郭再祐는 경상좌도 방어사로서 淸野策에 따라 1597년 8월 화왕산성에서 加藤清正의 군사와 대결하였으며, 화왕산성을 끝까지 지켰다. 그는 이미 1597년 경상좌도 방어사로 현풍의 石門山城을 수축하였으며, 이어서 의령·단성·고령 등 낙동강 일대의 산성을 조사하고 수축하다 몸소 화왕산성을 지켰다.¹³⁴⁾

정유재란 시기에 火旺山城 참전한 관군 인사들은 정유재란기 郭再祐 군의 지도부 19명은 대부분 창녕 지역의 재지사족들이었다. 그들의 거주지는 昌寧 6명, 靈山 1명, 密陽 1명, 延安 1명이었다. 나머지 인사들의 출신지역은 뚜렷하지 않으나, 창녕과 영산의 유력사족인 辛氏와 成氏도 1명씩이나 있다. 또 직책을 살펴보면 현직 관료가 4명이나 된다. 이러한 사실에서 단적으로 광재우 군의 성격이 관군이었음을 알 수 있지만, 지역적 기반은 창녕이 중심이었을 알 수 있다. 한편 鄭仁弘의 문인이었던 文弘道가 掌務官으로 올라 있

134) 산성을 통한 방어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 방어책이었다. 즉 자연을 최대한 이용한 지역방위체계였다(李樹健, 「南冥學派 義兵活動의 歷史的 意義」, 『南冥學研究』 2,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1992).

으며, 임진왜란 초기의 의병으로 활동했던 全齋, 成安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火旺山同苦錄』에 나타난 나머지 인사들은 67읍에 640여 명이었다. 그들은 경상좌도 출신이 30읍에 489명으로 73%, 경상우도 출신이 19읍에 97명으로 14%이다. 정유재란 당시의 영남 지방 사족 가문들의 대표적인 인사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임진왜란 이후 진행된 顯彰事業의 분위기 속에서 영남 제일의 의병장으로 추앙받던 郭再祐와 자기 先祖를 연관시키고자 하였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¹³⁵⁾ 때문에 지역적으로 직접 참전이 가능했던 창녕 현풍 영산 밀양 의령 함천 삼가 고령 청도 지역의 인사는 44명뿐이었으며, 참전이 불가능했던 안동 106명 등 경상좌도의 인사들과 서울 등의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¹³⁶⁾ 당시 고령 지역에서도 朴元甲, 金聲律, 金鎭, 金聲徹, 金逢慶, 朴大任, 金鎰, 朴光先, 金沔, 鄭以禮, 鄭尙禮, 都遇, 朴孝先, 金應聖, 兪良佐, 金聲振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활약한 인물들이다.

한편 의병 대책에 부심하던 조정은 의병이 관군의 통제를 받지 않고 민간에 폐단을 일으킨다는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反官的인 행동이 반란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걱정하였다.¹³⁷⁾ 이 점이 임진왜란 시기의 의병운동에 대한 봉건 왕조의 본질적인 대응이었다. 전국적인 기아는 관군에 대한 군량의 보급에 차질을 가져왔고, 국가 방어보다는 糊口之策을 위해 의병이 된 자들이 群盜가 될 위험이 있었다. 이에 국가는 의병의 관군화 조치를 강행하여 1594년에는 여러 도의 의병을 혁파하여 金德齡 군에 소속시켰으나,¹³⁸⁾ 군량 조달이 불가능해지자 많은 의병을 강제로 귀농시켰다. 이후에 金德齡을 정치적 모략에

135) 李樹健, 『忘憂堂全書』 해제.

136) 趙顯命이 서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책자가 만들어진 영·정조 시기의 현창사업의 분위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이해할 부분도 있다.

137) 『선조실록』 권39, 26년 6월 임술.

138) 『선조수정실록』 권18, 27년 4월.

의해 희생시키고 의병을 공식적으로 관군에 흡수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병은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다.

이제 의병 해체 이후의 경상우도에서 나타난 민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경상우도에서도 의병운동 초기에 일부 이탈 세력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민들은 반침략의 의병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그렇지만 전쟁이 경과되면서 왕조의 의병 통제와 의병장의 관군 흡수로 반침략보다는 反官의인 모습으로 전개되어 나갔다. 구체적으로 민들이 도적이 되는 경우와¹³⁹⁾ 일본군에 투항하는 경우였다.¹⁴⁰⁾

그러나 고령 지역에서는 민들이 귀농하여 농사를 지었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군량의 확보를 위해서도 긴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경상도는 명년의 종자를 반드시 미리 지급한 뒤에야 농사를 지어 내년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도내의 상주·금산·개령·선산 등의 고을은 충청도와 좌도 중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읍의 곡식 종자를 벼·기장·피·조·옥수수·콩·팥을 막론하고 옮겨다가 제급하고, 본 고장의 백성이 실어다 주기 어렵으면 잔패된 지방의 백성으로 하여금 각기 힘닿는 대로 가지고 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을의 수령은 특별히 토지를 가려서 백성에게 할당하여 주어 농사짓도록 하게 하소서. 성주와 인동 등 처는 전라도와 조금 가까우니 또한 전라도로 하여금 종자를 제급하기를 상주 등의 예와 같이 하게 하소서. 그 밑으로 고령·함천 이하는 금년 농사가 제법 잘 되어 완전히 버리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으니 단지 그곳 수령이 마음을 다하여 권장하기에 달렸을 뿐입니다. 이것 모두가 사명을 받들고 내려가는 자의 임무이니 이 뜻을 該曹가 급속히 조치하여 그 시기를 잃지 않게 하여야 조금이나마 기민을 구제할 길이 있게 될 것이므로 감히 아뢰입니다.¹⁴¹⁾

139) 『선조실록』 권37, 26년 4월 을사.

140) 졸저, 『임진왜란과 경상우도의 의병운동』, 혜안, 2002, 200-204쪽.

141) 『선조실록』 46권, 26년 12월 24일 계유.

아울러 고령 지역에는 屯田이 설치되어 군량 보급과 국가 회복의 근거지가 되었다.¹⁴²⁾

이제 고령 지역의 후기 의병의 주요 전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령 지역의 후기 의병운동은 김면이 전라도 의병장 任啓英과 崔慶會 등과 함께 싸워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¹⁴³⁾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거창 중심으로 김천과 선산을 활동 영역으로 하였다.¹⁴⁴⁾ 이때 고령 지역은 정인홍 군이 주로 활동하였다.¹⁴⁵⁾

이처럼 후기 고령 지역의 의병운동은 정인홍 군에 참여하거나, 김면 군에 참여하는 경우였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전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시기로 김면은 의병 진에 대한 순검을 하면서 의병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남하하는 일본군을 격멸하기 위한 관군과의 연합작전을 시도하였다. 1592년 12월의 상주 의병진을 중심으로 한 감문적 토벌작전, 선산부사 丁景達의 제의에 의한 두 왕자 구출작전 참여였다.¹⁴⁶⁾ 그러나 이후에는 고령의 후기 의병도 귀농 조치가 행해지고, 관군으로 편입되면서 해산되었다.

5. 맺음말

임진왜란 시기 고령 지역은 일본군의 침입 경로에 위치하여 초기부터 침입을 당한 지역이었다. 때문에 고령 지역은 임진왜란 개전기에는 낙동강을

142) 『선조실록』 59권, 28년 1월 22일 을미.

143) 『선조실록』 39권, 26년 6월 6일 기축.

144) 『선조수정실록』 26권, 25년 7월 1일 무오.

145) 『난중잡록』 2, 임진년 하, 선조 25년 8월 3일.

146) 정진영, 「송암 김면의 의병활동과 관련자료의 검토」, 『송암 김면의 생애와 의병활동』 고령군·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05, 99~105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암실기』, 趙靖, 『임란일기』, 丁景達, 『반곡난중일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건너 전라도로 진격하려는 일본군을 차단하였으며, 전쟁 소강기에는 후퇴하는 일본군과 추격하는 명나라와 조선군의 주둔지와 전쟁터였으며, 정유재란 기에도 주요 전쟁터였다.

임진왜란 시기에 고령 지역에서는 국난을 방어하기 위해 재지사족과 민들에 의해 의병운동이 이른 시기부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사실 임진왜란 전에 수령의 부정과 조세제도의 모순으로 관주도의 항쟁은 불가능하였다. 고령 지역의 의병운동은 재지사족들의 기반에 터전하여 전개되었다. 대부분 고령 향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의병운동을 주도하였는데, 이들은 향교와 유향소를 통해서 향권을 장악하고, 혼인을 통해서 결속되어 있었던 가문들이었다. 아울러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의병운동의 군사와 군량으로 내어 놓았는데, 분재기를 통해서 재산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사상적으로는 남명 조식의 학풍을 수용한 제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들은 전쟁 후 대북정권에 참가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고령 지역에서 전개된 의병운동은 초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초기 의병은 생활 근거지 주위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다 1592년 5월부터 김면 군으로 조직화되었다. 대표적으로 김면, 박정완, 정상례, 이득춘 가문이 대표적이었다. 후기 의병은 김면이 의병도대장이 된 이후로 전투는 소강상태였으나, 고령 지역은 경상우도의 의병을 총괄하는 김면과 고령 지역을 관할하는 정인홍이 활동하였다. 활동 지역상으로 고령 지역의 의병운동은 초기에는 고령 중심의 지역방위군을 형성하여 낙동강과 인근 지역을 방어하였으나, 후기에는 김면의 휘하에서 경상도 의병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임진왜란 시기에 고령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전개된 의병운동은 생활 터전을 지키며, 일본군을 격퇴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해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의병 해체 후에도 고령 지역의 민들은 귀농하여 농사를 지어 명나라 군대의 참전 이후 군량을 조달하는 등 국가 회복의 중추로서 역할을 하였던 지역이었다.

【참고문헌】

- 고령문화원, 『松菴先生實記』 고령문화원 편, 1979.
- 고령문화원, 『송암선생 일대기』, 대일, 1998.
- 고령군·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편, 『松菴 金沔의 生涯와 義兵活動』, 고령군·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05.
- 고령군, 『松菴 金沔과 壬亂義兵』, 고령군대가야박물관, 2005.
- 鄭鉉在, 「慶尙右道 壬辰義兵의 戰跡 검토—金沔·鄭仁弘 의병군단을 중심으로—」, 『경남문화연구』 17,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1995.
- 경상북도, 『경북의병사』,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90.
- 임란호국영남추의단보존회, 『임진영남의병사』,譜文社, 2001.
- 최효식, 『임진왜란기 영남의병연구』, 국학자료원, 2003.
- 정진영, 「松菴 金沔의 임란 의병활동과 관련 자료의 검토」, 『大丘史學』 78, 대구사학회, 2005.
- 金益載, 「松菴實記 解題」, 『남명학연구』 22,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06.
- 노영구, 「임진왜란 초기 경상우도 의병의 성립과 활동 영역—김면(金沔) 의병부대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64, 한국역사연구회, 2007.
- 金康植, 「松菴 金沔의 義兵活動과 役割」, 『남명학연구』 2,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2.

Abstract

The Volunteer Corps Movement in Goryoung(高靈)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1598(壬辰倭亂) and its Meanings

Kim, Kang-Sik

The war, generally called the Japanese Invasion, could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 peace negotiations, the Japanese Invasion of 1598. This article aimed to examine the volunteer army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1598 and its meaning in Goryoung.

First, the strategic position of Goryoung was very important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1598. The Volunteer Corps stirred up fighting spirit of our forces by cutting off the marching into Honam(湖南) of the Japanese army, so that the fighting power of Japan was scattered because of the transport-rout securing tactics from behind by her army.

Second, I examined the ground and organization of the Volunteer Corps in Goryoung. We have to understand the ground in terms of the historical contexts. Especially, in the contexts of thought history we need to come close to Neo-Confucian schoars which is leading group of the Volunteer Corps movement. Among the elements of Neo-Confucianism, there is a respect for Piety(敬) and righteousness(義), a critique of reality, an emphasis of practice, and so on which are the characters of the Nammyouhag(南冥學) and something to be connected with Volunteer Corps movement at the same time. But the true meaning of these systems was that the local magnates conceded to people somehow. There were the Local Agency(留鄉所), Village code(鄉約), Neighborhodkye(洞契) which were the local systems before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1598. Thank to them, the Volunteer Corps was organized and formed with ease. In the economic side, as the local magnates held slaves and property, it was possible to recruit and maintain the Volunteer Corps during war. The magnate families possessed slaves about 200 and land

about 1,000 patch of field. I can confirmed that with a slave-documents and cadsters.

Third, the troop of Kim, Myoun(金沔) was organized by may in 1592. And in latter period it controlled volunteers totally in Gyoungsang-uhdo(慶尙右道) and became government army. The prominent Volunteer Corps generals enlisted in it. They in the early led independently homeland reserve corps or volunteers. Kim, Myoun's troop was led by persons in Goryoung and Geochnag, and later volunteers and government army everywhere in Gyoungsang-uhdo participated in it. And the troop of Kwag, Jae-Woo(郭再祐) acted as independent Volunteer Corps by April in 1592. Kwag, Jae-Woo totally controlled volunteers in Gyoungsang-uhdo after Kim, Myoun's dead. The personal formation of the troop of Kwag, Jae-Wook also was expanded districts from Uiryeong(宜寧) to Changyeong(昌寧).

As mentioned above I researched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Volunteer Corps movement in Goryoung. The movement succeeded in the side of anti-foreign power movement. And the Volunteer Corps movement contributed to the developing of history as the action of demanding the transformation of feudal society.

Key Word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98(壬辰倭亂), Goryoung(高靈), The Volunteer Corps Movement, Kim, Myoun(金沔), Gyoungsang-uhdo(慶尙右道)

- 논문투고일 : 2007.12.14. 심사시작일 : 2008.01.17. 심사완료일 : 2008.01.27.